

#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화

김 성 이\*

## 1. 비행청소년을 보는 시각

은나라를 경악에 빠뜨린 이른바 「지존파」청소년 집단문제는 사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양한 자기 진단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건 이후 각계에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발전단계에 잠재된 여러종류의 부조화와 갈등구조, 물량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차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혼동 등 다각적인 반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반성적 분위기에 반대하는 또 한편의 사회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는 반인륜적 흉악행위로서 이들의 행위를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합리화 시켜서는 안되고 이들의 행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며 엄청난 범질서를 요구하는 시각도 팽배하여 사회분위기를 뒤바꾸어 놓은것도 사실이다.

이런 후자의 견해는 Sykes & Matga (1957)의 중화기술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 이론의 요지는 비행청소년이나 범법자들은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짓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내면적 통제 고삐를 풀어 놓는 자기합리화 작업을 함으로서 자유스럽게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비행자는 자신의 비행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수단으로써 자신들의 비행행위는 부정한 사회에 책임이 있고(Denial of Responsibility), 사회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Condemnation of the Condemner),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들은 응당한 처분을 받는것이며(Denial of Victim), 결코 지역사회에 누를 끼친 행위는 아니라고(Denial of Injury)하면서, 동료들의 살해는 집단의 결속을 위해 불가결한 것(Appeal to the Higher Loyalty)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언론들이 이들 비행자들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언동을 그대로 믿고 방영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그후에 후자의 입장에 못박혀 이들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더 큰 문제라고 지적 안할 수 없다. 즉 그들이 저지른 비행은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나, 또한 이들 비행자가 형성되는 사회적 여건도 우리 사회복지관계자들이 검토해야할 대상인 것이기 때문이다.

---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2. 비행청소년의 형성 배경

정상분포 곡선하에 우리들의 행동을 놓고 볼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규범을 따르는 정상범위에 있다. 그리고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는 상층의 일탈과 하층의 일탈이 있다.

상층의 일탈은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압구정동의 「야타족」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층의 일탈은 바로 「지존파」들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이들 하층의 일탈행위는 범죄로 취급하고 강한 벌을 내리나 상층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절제만을 요구할 뿐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고 있다. 도덕과 윤리가 약한 사회에서는 이들을 규제할 아무런 방안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층의 일탈자 집단은 왜 우리들 만을 처벌하는가 하는 불만을 갖게 된다. 더구나 상층의 부의 축적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는 사회에서는 이들의 불만은 분노로 발전할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비행을 저질렀는가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것은 사회적유대가 강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묶어 놓을 끈을 상실하였다. 그들에게는 이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없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도 없다. 즉 그들은 가정이라는 제도, 학교라는 제도, 그리고 직장이라는 제도로부터 소외된 청소년 들인 것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란 무료로 죽어야만할 시간들이다. 더우기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사회규범을 위반 했을때 더 이상 잃어 버릴것도 없다. 더우기 전통적 가치나 관습은 가진자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게 된다.(Hirshi & Hindelaug, 1977) 이렇게 애착, 참여, 전유물과 신념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돈 벌기를 요구하고 있다.(Hirshi, 1969) 그들은 규범은 그들의 욕구좌절의 원인이며 타파해야 될 대상으로만 인식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비제도화된 불법적 수단(Merton, 1949)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가장 큰 특성으로 하고 있다. 산업화에 의한 분업화는 가정, 학교, 직장의 분리를 초래하였으며 더 나아가 가정, 학교, 직장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그나마 가정이 가져야할 보호적 기능은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으로 결손된 부모들에 의해 더 이상 보호유대를 지킬 수 없는 소외의 장터로 변하였고, 학교는 지적교육을 우선시 하므로써 개인적, 환경적에 의해 지적수준을 따라가지 못할때 제외시키는 심판장으로 변화했으며, 직장은 귀천의 개념이 형성되어 천한직장은 근로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키는 품팔이 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3가지 장은 그들을 제도권밖으로 밀어내기에 충분한 요소가 된다. 각 장과 장은 청소년들에게 극복할수 없는 위기의 장이며 스트레스의 연속인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위기상황속에서 그들의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적응양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가정이라는 제도로 부터, 교육이라는 제도로 부터, 또 직장이라는 제도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 집단」이 만들어 지게되었다.

### 3. 비행청소년의 복지권

이들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는 규범을 위반했을 때 기다리는 제재수단인 법적 제도만 있을 뿐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는 없다. 교육위원회(1994)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우선 추진할 3대 과제로서, 1.교육 재정의 확충, 2.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3.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등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의 대책에는 무관심하다. 즉 교육부의 관심도 「제도권 내의 청소년」에게 관심있지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보건사회부 발행 「보건사회 백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장 중 아동복지 부문에서도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 제34조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 제4항에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 더 기능적이고, 자립적이며 창조적으로 사는 방법을 깨우치도록 해주는 복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금전적, 물질적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더 필요한 것은 「의미있는 자아(Significant Self)」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도울 것인가? 생존권으로부터 파생된 청소년복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립된 시민으로 생활하게끔 능력을 창출, 회복케 하므로써 주체적인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생존권은 경제적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생존권이 아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민적 자립을 창출하고, 회복시켜서 자존심을 고양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적 생존권은 단지 국가에 의한 보장만을 유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시민적 자립적 삶을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 사적 단체와 보호자,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데 그 특징이 있다. 사회보장의 생존권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항이라면, 사회복지적 생존권은 국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이 더 책임져야할 사항이다.

셋째, 사회복지적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사업적 개입이 있어야한다. 전문 사회사업의 실천의 초점은 생활상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인간 그 자체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라는데 두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의 회복이라 하겠다. 자립의 계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도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환경에도 개입하여 개선하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생존권적 욕구를 추상적 이념적 차원에서 보다는 실천적, 구체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촉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4. 사회지지망의 제도화

청소년들이 사회적 정체감을 갖고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각종 지지는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Hirsch(1981)에 의하면 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이 문화 및 사회에 의미있는 참여와 사회적 망이 이를 시인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망이란 지속적으로 양육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삶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Garbarino, 1984)이라고 하겠다. 이 사회적 지지망은 사회적 동반의식(여가 및 사회적 활동에의 공동 참여 등), 정서적 지지(승인 및 존중), 인지적 안내(정보교류, 상호적 역할 모델 등), 물질적 보조와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통제(역할, 의무의 재확인)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비행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망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해 주면 (1)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2)행동방향을 제공하며 (3)정체감을 확보할 수 있다(Caplan, 1974).

사회적으로 말하면 「의미있는 타자」군의 형성을 통하여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과업을 분담해주며, 나아가 금전, 물질, 기술 및 이지적 지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지망은 단일차원적 개념이 아니라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지지 제공망이라 하겠다.

사회적 지지망을 이용하여 개입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 개인의 요구충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타자를 동원하는 개인적 접근법, 개인의 사회적 망에 자원봉사자를 연계시켜 새로운 망자원을 형성시켜주는 자원봉사자 개입 접근법, 유사한 문제나 공동 문제에 직면해 있는 개인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집단적 접근법, 지역사회 보호 제공자를 육성하여 지지자원을 확충하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역사회 접근법,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 적응을 강화시키주어 소속감을 갖게 하는 조직 접근법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복지관, 보호관찰소, 교육기관, 보건기관 및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등에서 독자적이고 상호협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5. 앞으로의 과제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 관계자 및 기관이 협동하여 전국적인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화를 시도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과제.

제도권의 보호가 단순한 양적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의사소통 기술에서부터 자아관 확립까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삶의 질 면에서 충분히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질과 조직화의 과제.

실무자들의 교육, 재교육의 문제와 실무자들의 인사관리의 체계화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세째, 제도 담당기관의 설립과제.

지지방 이론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소속감과 정체감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한 조직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네째, 기존 제도와의 연계 과제.

서비스 전달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신제도와 기존제도 간의 교류가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지역사회 통합적 개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신제도와 기존제도 간에 문화의 이원구조화를 막기 위해서이다. 기존제도와 통합적 개념없이 운영되다가 보면 자칫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Levine and Harvighurst, 1989) 정책에서 겪었던 갈등과 불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 교육개혁위원회 (1994),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교육개혁위원회, pp.1-37.
- Caplan,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for Mental Health Practic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21-22.
- Garbarino,J. (1984), "Social Support Networks RX for the Helping Professional," In Whittaker,J. & Garbarino,J. Social Support Networks : Informal Helping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Aldien Pub.Co. pp.5.
- Hirsch,B. (1981), "Social Networks and the Coping Process : Creating Personal Communities," In Gottieb,D(ed.),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pp.149-170.
- Hirshi,T. (1969), Cause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208.
- Hirshi,T. & Hindelaug,M. (1977),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 A Revisional Review," Americian Sociological Review, 42, pp.471-586.
- Levine,D. & Harvighurst,R. (1989), Society and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pp.363-367.
- Merton,R. (1949), "Social Structure and Anomie : Revisions and Extentions," In Ruth Nauda Ansheu, The Family: It's Function and Desting, New York, Harper & Row, pp.275-312.
- Sykes,G. & Matga,D. (1957), "Techniques of Neutialization :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ian Sociological Review, 22, pp.664-676.